

 인천광역시	보도자료		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
	배포일자	2023년 8월 9일(수) 총 2매	
담당 부서	해양환경과	담당자	• 해양생태지질팀장 김경희 ☎440-7881 • 담당자 배준성 ☎440-7884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백령·대청 국가지질공원 체험

- 청소년 등 30여 명 대상 지질공원 체험 기회 제공 -

- 지질명소의 소중한 가치 인식 및 지질공원 홍보 활성화 기대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여름방학을 맞아 인천 섬에 대해 생소한 여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령·대청 국가지질공원 체험행사를 8월 7일(월) 부터 8월 8일(화)까지, 2일간 진행했다.

체험행사 일정은 당초 수요일까지 3일간 진행 예정이었으나, 태풍 카눈의 예상 진로 변경으로 선박 결항이 예정되어 일정이 단축되었다.

이번 체험행사에 참여한 청소년 및 보호자 약 30명은 백령·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여러 지질명소 체험 및 지질 트레킹, 해양 정화 활동 등 체험 프로그램 일정을 수행했다.

우선 8월 7일 1일 차에는 백령도 사곶해변 및 지질명소 두무진을 체험했다. 2일 차 오전에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지질공원 해설사들의 설명을 들으며 지질명소 콩돌해안을 둘러본 후,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의 최대 서식지인 진촌리현무암 해변으로 이동하여 점박이 물범

을 호기심 있게 관찰하였다. 오후에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안전한 귀가를 위해 여객터미널로 이동하며 2일간의 체험행사를 완료했다.

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백령도 대청도에 대해 생소한 많은 학생들에게 지질공원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” 라며 “앞으로도 백령·대청 지질공원 관광 및 홍보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며, 향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달성해 백령도와 대청도, 소청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태 지질관광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” 라고 말했다.

한편, 인천시는 지난 2019년 백령·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후 약 4년 동안 지질공원 체험 행사 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 조성 및 확대, 백령도·대청도·소청도의 관광 환경 향상을 위한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백령·대청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.

<관련사진>

□ 두무진



- 두무진 지질 체험 -



- 두무진 유람선 체험 후 단체사진 -

□ 콩돌해안



- 콩돌해안 단체사진 -



- 콩돌해안 체험 -

□ 진촌리 현무암(하늬 해변)



- 지질공원 해설사의 설명 -



- 망원경을 통한 점박이 물범 관찰 -